

초고령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최다

5년간 99명으로 전체 27%...대부분 운전 미숙

트랙터 몰던 80대 영광서 1.5km 역주행 9명 부상

추석날인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영광군 영광읍 22번 국도 장등교차로 인근에서 2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고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80대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달리면서 비롯됐다. 농부 최모(82)씨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무려 1.5km나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첫 사고는 이날 오후 7시 5분께 트랙터를 피하러다 1.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가 부딪힌 것으로, 사고를 피한 트랙터는 계속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랑 2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역주행을 끝냈다. 이 사고로 농부 최씨와 운전자, 동승자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영광경찰은 18일 “사고 직후 농부 최씨는 자신이 정상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랙터 역주행으로 사고를 부른 최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 직후 역주행 경위를 묻는 경찰에 “일 보고 집으로 가는데 차들이 계속 역주행하며 (내게) 달려왔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트랙터 역주행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기계 사고는 농도(農道) 전남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불려온 어두운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40만명에 근접한 초고령 사회인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지난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경북(57명), 충남(47명), 경남(31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67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사고의 26.7%가 전남에 집중된 셈이다.

전남은 지난 2011년 농기계 교통사고 80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6명이 부상당했다.

2012년에는 87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졌고, 2013년에는 102건이 발생해 무려 29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1건, 92건의 사고가 일어나 24명,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남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위를 기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운전 미숙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돼 운전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은 60~80대 노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경우가 태반인 것을 감안하면 연령대에 맞는 안전교육과 도로 주행 농기계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식별표식을 달아주는 등 지원도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해질 18:34 다음날 20:25 다음날 08:42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구름이 많고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9/26	보성	흐림	18/24
목포	구름많음	20/25	순천	흐림	20/25
여수	흐림	20/23	영광	구름많음	18/25
나주	구름많음	18/27	진도	흐림	20/26
완도	흐림	20/26	전주	구름많음	17/26
구례	구름많음	17/25	군산	구름많음	18/25
강진	흐림	19/26	남원	구름많음	17/25
해남	흐림	18/26	속산도	구름많음	20/24
장성	구름많음	17/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2.0
	면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1.5~3.0
	안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1.5~3.0
남해	면바다(동)	북동~동	3.0~4.0	북동~동	3.0~4.0
	면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45	08:55	16:10	21:15
여수	10:41	04:20	16:37	
	22:59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17/27	15/26	17/26	17/27	17/27	18/28	18/28

◇생활지수

	주요
	보통
	좋은

광주·전남 296mm 폭우

비닐하우스 91동 침수

뱃길 통제로 지각 귀경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 최고 296mm의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귀경객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부터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여수(소리도) 296mm를 최고로 장흥(관산) 275.5mm, 함평(월야) 225mm, 보성 197.5mm, 신안(임자) 194mm, 광주(용곡동) 166.5mm 등이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계곡에 야영객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17일에는 담양군 월산면 용흥사 계곡에 야영객 2명이 고립됐다가 119구 조대에 의해 30여분만에 구조됐다.

장성에서는 비닐하우스 53개동(11개 농가)이 물에 잠기는 등 전남에서만 이번 폭우로 91개동(26개 농가) 6.7ha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광주 하남산단 6·7·8번 도로도 침수됐으며 강진군 성전면 풀지터널 인근 국도 13호선과 장흥군 용산면 지방도 819호선에는 토사가 흘러내려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17일에는 폭우로 인한 기상악화로 전남지역 55개 항로 92척 가운데 23개 항로 30척의 운항이 통제되면서 한때 1만 5000여명의 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풍에 쓰러진 무진대로 가로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청 공무원 9월 성과급도 못 받는다

구청-노조 ‘재분배’ 갈등 심화...노조 오늘 24시간 농성 돌입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 문제’로 한 달째 대립해온 광주 북구청과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구청은 8월분에 이어 9월 분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24시간 천막농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북구청에 따르면 노조가 재분배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6~7월 분 성과급을 받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8월분에 이어

9월분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북구는 전체 공무원 1000여명 중 800여명이상이 노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성과급 재분배 금지 조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분배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과급 환수 조치와 함께 1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구청 로비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노조는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체불임금 지급! 노조단합 분쇄! 북구 공무원노조 투쟁선전’ 기자회견을 하고,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분배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북구청의 성과급 지급 유보는 명백한 임금 체불이다”며 “미린 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

광주·전남 가슴기 살균제 피해 192명

사망자 50명...사망률 전국 평균 웃돌아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는 현재까지 19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11년 지역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19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이 가운데 광주 24명, 전남 26명 등 총 50명이다. 광주 84명, 전남 58명은 생존 환자다.

사망률은 광주 22%, 전남 31%로 전국 평균인 20%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북구가 38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구 31명(사망 5명), 광산구 22명(사망 2명), 서구 15명(사망 3명), 동구 2명(사망 없음)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순천 19명(사망 4명), 여수 13명(사망 5명), 광양 12명(사망 2명), 목포 8명(사망 3명), 나주 6명(사망 4명), 무안 6명(사망 2명) 순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국에서 약 1000만명이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9만~227만명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드러난 피해 현황은 빙산의 일각이다”면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슴기 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지속적인 언론홍보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서도 갤럭시노트7 폭발...20대 1도 화상

광주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주택에서 전모(28)씨가 갤럭시노트7에서 발생한 불로 손에 화상을 입었다.

전씨의 갤럭시노트7은 충전 2시간 만에 ‘딱’ 소리와 함께 폭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전씨는 불이 붙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서 떼어내기 위해 만지다가 손에 약 1cm가량 1도 화상을 입었다.

삼성은 전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백미리
나주명행
500m
대산프리모가발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